

#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4/13~2026/04/19]

2026.04.20

## [로봇] 중국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

- 레인보우로보틱스 RB-Y2 공개. 로보티즈는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K-1 공개
- 피지컬 인텔리전스  $\pi 0.7$ 로 업그레이드. 구글 딥마인드도 제미니AI로 로보틱스 ER 1.6 공개
- 중국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 작년과 비교해 월등한 성장. 48분에 주파해 세계신기록 돌파

## [방산] 주문해도 오지 않을 미국 무기

- 현대로템, 현대위아 방산 사업부 인수 추진. KA와 풍산에 이어 호황 속 업계 재편 활발
- 일본, 살상력 있는 무기 수출 가능하도록 승인. 수출 컨트롤 타워 구축도 추진
- 독일 IFV를 사겠다는 루마니아. IFV를 포기하고 드론을 사겠다는 에스토니아

## [조선] AI와 엔진

- LPG운반선 호황. HD현대상호 2척, HD현대중공업 4척 수주
- VLCC는 아쉽게 중국에 집중 발주. 어드밴티지 탱커스, JP모건, 머큐리아 등
- 일본 후쿠 호위함 11척 건조 계약 체결. 한국은 캐나다 잠수함 올인. 한화오션 어빙조선소와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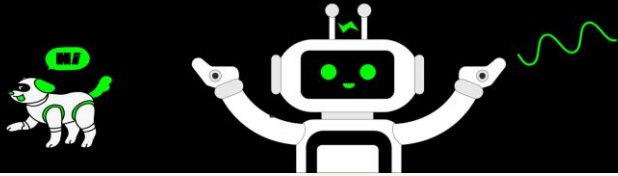
## [항공] 해소되지 않는 항공유 부족

- 이변 주도 LCC 비운항 소식 다수. 에어프레미아 미국, 에어로케이 동남아 노선 등
- IEA에서 유럽 항공유 6주뒤 소진될 것이라 언급. 5월 인천-뉴욕 유류할증료 110만원으로
- 유나이티드항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메리칸항공에 합병을 옹호

## [해운] 유류할증료 인상 영향

- 해운업계도 중동 전쟁 유탄. HMM, 한국-남중국 노선 유류할증료 5배 인상
- 이란, 호르무즈 재봉쇄에 美 '전면 나포', 종전 협상 또 먹구름
- 태평양 횡단 및 유럽항로 컨테이너 운임 6주만에 하락세 전환

#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 Weekly Keyword

### 중국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국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이 개최. 전체적인 성과는 전년대 크게 개선된 모습. 주행 속도도 빨라지고 하드웨어 안전성이 개선됨. 이제는 하드웨어를 넘어 AI 고도화를 추진.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22)

### [중국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

- 올해도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이 개최됨. 중국 스마트폰 업체 아너(Honor)가 만든 휴머노이드 'lightning'이 50분 26초로 우승. 인간 세계기록(57분 20초)보다도 더 빠른 기록. 작년 첫 대회에서는 우승 기록이 2시간 40분대(현궁). 작년은 대다수의 로봇이 완주 자체도 어려웠는데(21대 중 6대), 올해는 여러 로봇이 1시간 이내 기록을 내며 성능이 크게 개선된 모습을 확인함. 전체 로봇 중 약 40%는 원격 조종이 아닌 자율 주행으로 참여. 1년만에 중국 로봇의 하드웨어 능력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 다음은 범용 AI 차례. 최근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들(유니트리, 애지봇 등)은 휴머노이드 데이터를 오픈 소스로 공개하며 데이터 구축을 위한 개방형 생태계 구축에 집중.

### Key Chart: 하프 마라톤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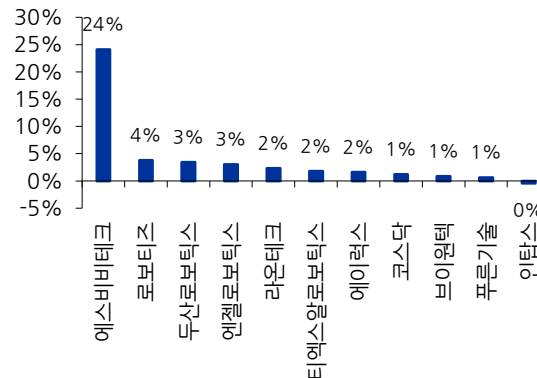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유진투자증권

##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 로봇 주요 뉴스(04/13~04/19)

###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로봇개 투입' 검토

### [휴머노이드]

- 로보티즈, 보급형 휴머노이드 K-1 공개
- 정의선 회장 "2030년까지 연간 3만대 아틀라스 생산"
- 기계연, "내년 한국형 휴머노이드 첫선"

### [부품/SW/기타]

- 삼성로봇단장 "현장부터 바꿔" 레인보우 RB-Y2 공개
- 에스피지, '모덱스 2026'에서 액추에이터 'SDD' 첫 선
- 에이딘로보틱스, 레인보우 'RB-Y1' 1호 대리점 계약
- 1800억 RCPS' HD현대로보, 재무 리스크 '부메랑'

### [Global]

- 세계신기록보다 빨라. 中 로봇 하프마라톤 48분에 주파
- 中 휴머노이드 로봇, 1초에 10미터 주파
- 中 애지봇, 월드 시뮬레이터 '지니 인비저너 2.0' 발표
- 中 타스로봇 6,700억 조달, 단일 라운드 역대 최대
- 中 애지봇 휴머노이드 로봇, 태블릿PC 생산라인 투입
- 피지컬 인텔리전스, 새 로봇 두뇌 '0.7' 공개
- 스킬드 AI, 지브라 로봇 사업부 인수
- 구글 딥마인드, 제미니에 로보틱스 ER 1.6 공개
- 테슬라, 상해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생산 검토
- 베어로보틱스, 북미 물류 전시회사 AMR 신규 4종 공개
- 휴머노이드 "집안 일 성공률 12%"
- 도요타, 신형 농구 로봇 공개. 로봇 제어 고도화
- 日 도요타자동차, AI 농구 로봇 'CUE7' 공개







## Weekly Keyword

### AI와 엔진

바르질라의 미국 데이터센터향 엔진 공급 계약이 보도되면서 국내 엔진 기자재 업체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커지는 중. HD현대중공업, STX 엔진 등 중속 엔진 제조 업체 대한 관심 확대 전망.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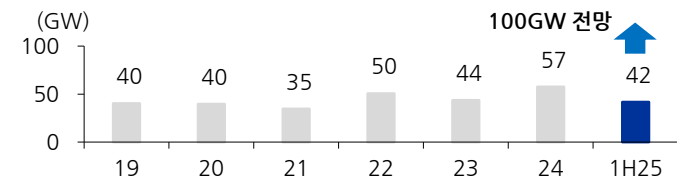


##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0)

### [AI와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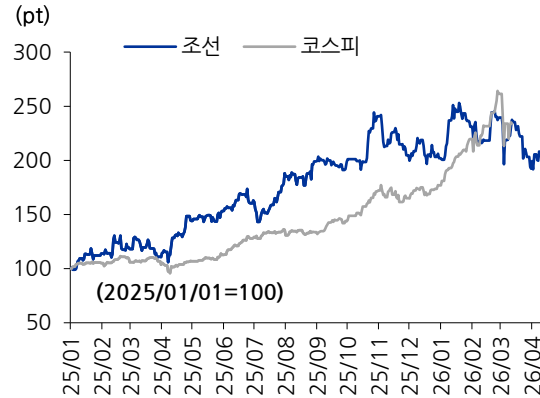
- 조선 엔진 밸류체인에 AI 인프라 투자 모멘텀 확산. 4월 16일, 핀란드 해양/에너지 기업 바르질라(Wärtsilä)가 미국 오하이오주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412MW 규모 엔진 공급(345G 엔진 40기)이 보도됨. 참고로, 동사의 미국 데이터센터향 엔진 공급은 총 1.6GW에 달함.
- 데이터센터향 엔진 공급 기대감에 국내 조선 엔진 업체들의 주가도 동반 상승 중. 4행정 중속 엔진이 육상 발전용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 데이터센터의 주 전력원인 대형 가스터빈의 공급 슬롯이 타이트해(미쓰비시중공업: 현재 29~30년 슬롯 수주 중), 중속형 가스터빈 및 중속 엔진의 클러스터링을 통한 전력 공급 방법이 주목 받고 있음. 특히, 엔진은 리드 타임과 모듈 기반 확장성에 강점을 지님.
- 국내 수해 업체로는 HD현대중공업과 STX엔진, 한화엔진이 있음. HD현대중공업은 자체 개발한 힘센 엔진 브랜드가 있고, 육상 발전 레코드로 보유. STX 엔진은 독일 MAN사(Everlence) 중속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 중이고, 한화엔진도 MAN사 라이선스 기반 중속 엔진 사업을 재개 중. 참고로 HD현대마린엔진은 대형 저속 2행정 엔진 업체.

### Key Chart: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 규모(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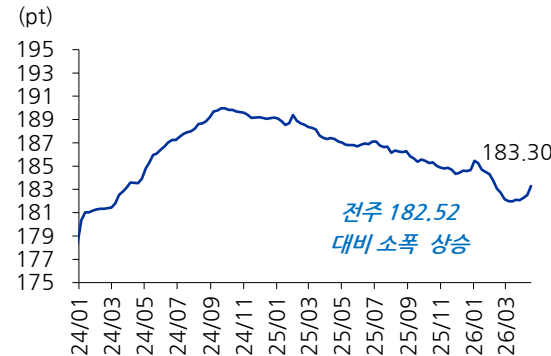


자료: MHI, 유진투자증권

##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iverse, Clarksons

## 조선 주요 뉴스(04/13~04/19)

### [상선/해양]

- HD현대중공업 \$134.5M PCTC 2척 수주
- HD현대상호 \$117.0M LPGC 2척 수주
- HD현대중공업 \$114.5M VLGC 4척 수주
- 대한조선 \$89.2M 수에즈막스급 COT 1척 수주
- 튀르키예 Botas, LNGC 2척 韓 조선에 선별 발주

### [특수선]

- 한화오션, 加 노바스코샤어빙조선소와 협력 확대
- 한화오션, 온타리오 주정부와 '산업의 날' 공동 개최
- 한화오션, 加 알고마 스틸에 3.5억달러 지원 약속
- 폴란드 오르카 "스웨덴 협상 불만족 시 다른 제안 검토"
- 태국 해군, 8천억 호위함 1척 다음주 입찰 마감
- 나토 대사단, HD현대 GRC 방문. 조선-방산 기술력 점검
- 스웨덴 항소 법원도 기각. HD현대 쇄빙선 수주 기대↑
- 美조선소 GD NASSCO 경영진 삼성중공업 방문
- IAEA 사무총장 "핵잠, 핵확산 아니라는 보장 필요"
- 美 함정 MRO HD현대重·한화오션 올해 2건씩 수주

### [기타]

- 한국카본, 296억 규모 출자. 美 생산시설 확보

### [글로벌]

- JP모건, 5억 달러 규모 VLCC 4척 다렌 조선과 계약
- 어드벤처 탱커스, VLCC 다렌 조선에 발주
- 머큐리아, 6.5억달러 VLCC 및 LR2 다렌 조선에 발주
- TKMS와 나반티아, 스페인 내 생산 시설 설립 검토
- 日 모가미급 호위함 11척, 호주와 건조 계약 체결



## Weekly Keyword

### 해소되지 않는 항공유 부족

중동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 항공유 재고가 6주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가 나오는 중. 한국 항공사들은 5월부터 유류할증료 최고 할증 구간을 적용할 예정.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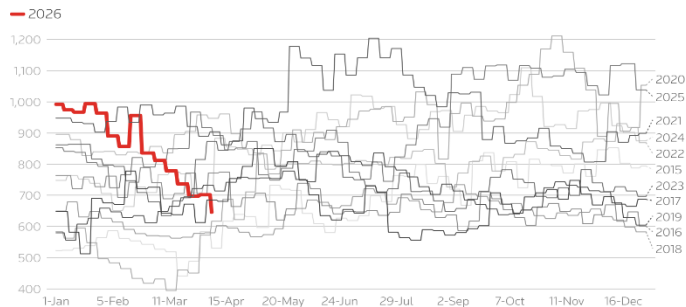
### [해소되지 않는 항공유 부족]

-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는 가운데, 항공 업계가 항공유 부족에 직면. 유럽에서는 항공유 재고가 6주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가 나오는 중. 항공사들은 통산 6주 가량의 재고를 비축하고 있는데, 전쟁 장기화로 비축된 연료마저 고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 5월에는 국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최고 할증 구간인 33단계에 돌입할 예정. 비용 부담도 리스크이지만, 운임 부담 확대에 인한 항공 여객 수요 감소 주의 필요.

## Key Chart: 암스테르담 기준 항공유 재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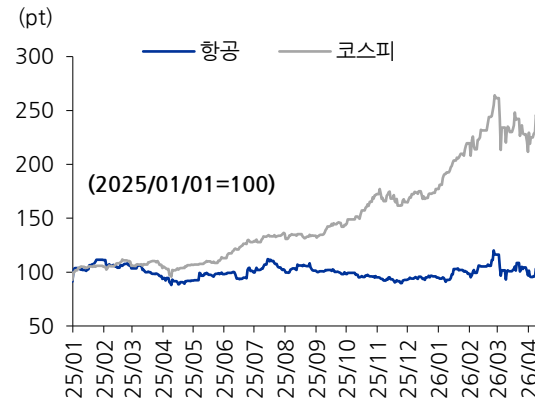
### Europe: Jet Fuel Crunch

Weekly data for jet fuel stocks in the the Amsterdam Rotterdam Antwerp (ARA) area. The ARA is key to supplying jet fuel to northwestern Europe via pipelines and barge traffic on the R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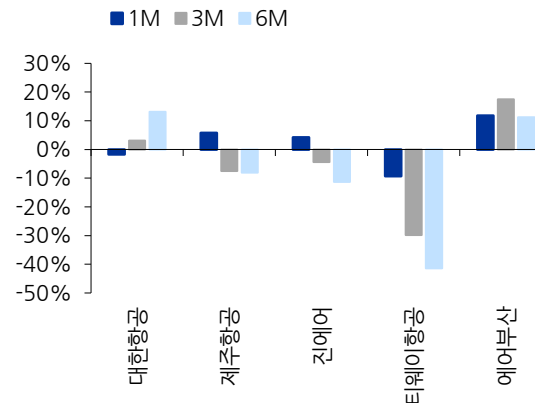


Note: Data in 1,000 tons  
Source: LSEG Workspace | Adam Jourdan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 항공 주요 뉴스(04/13~04/19)

### [여객/화물]

- 에어프레미아, 6월 美 노선 12편 비운항
- 에어로케이, 무더기 비운항. 청주발 다낭·나트랑 감편
- 중동 전쟁에 LCC 노선 4곳 중 1곳 사라졌다
- 뉴욕 왕복 유류할증료 내달부터 60만원 → 110만원
- 대구·구마모토 직항노선 개설 논의 시작

###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27년 한일 여객 1,500만명 예상. 노선확충 고려"
- 대한항공, 2037년 보유기체 270대로 대폭 확대
- 대한항공, 엔진 정비 '5조' 시대 연다. "30년 세계 10위"
- 대한항공, 'ETC-운항훈련센터'로 안전 중심 통합 준비
- 아시아나항공 스타얼라이언스 로고 없앤다
- 중동 전쟁 영향, 티웨이항공 국적항공사 첫 무급휴직
- 파라타항공, 3월 국제선 탑승률 93.7%

### [기타]

- 국토부, 국적항공사와 비공개 간담회. 유류할증료 논의

### [글로벌]

- IEA "유럽 항공유 6주 뒤 소진" 항공대란 현실화하나
-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에 합병 제안
- AF-KLM, 포르투갈 국영항공사 'TAP' 인수전 참전
- 英 항공사 버진애틀랜틱 인천 ~런던 노선' 신규 취항
- 회생 중 고유가. "스피릿항공, 이르면 금주 청산 가능성"



Weekly Keyword

유류할증료 인상 영향

전쟁이 장기화되며 선사들은 잇따라 유류할증료 인상을 발표. 유류할증료 인상이 다른 노선으로 확대될 경우, 화주들의 물류비 부담이 높아지며 중장기적으로는 물동량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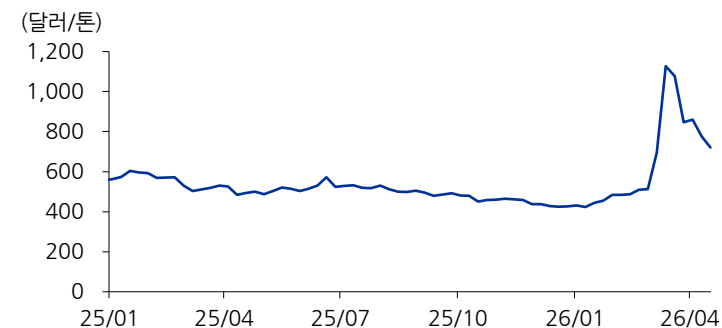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3)

유류할증료 인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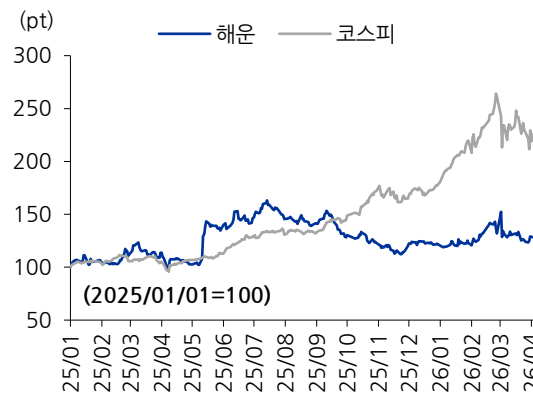
-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되며 고유가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선사들은 잇따라 유류할증료 인상을 발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남중국-홍콩 노선 1TEU 기준, 팬오션은 ECC(저유황유류할증료)를 50달러에서 140달러로 인상했으며 HMM 또한 20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 장금상선은 4/1 출항분부터 100달러의 EBS(긴급유류할증료) 부과를 발표.
- 이란은 4/17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발표한 후 하루만인 4/18 미국의 해상봉쇄를 이유로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며 인도 선박 2척을 공격. 4/21 휴전 시한을 앞두고 2차 종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전쟁이 장기화되며 유류할증료 인상이 다른 노선으로 확대될 경우, 화주들의 물류비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 선사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운임 및 할증료 인상으로 대응 가능하나, 중장기적으로는 물동량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Key Chart: 싱가포르 VLSFO(0.5% Sulphur)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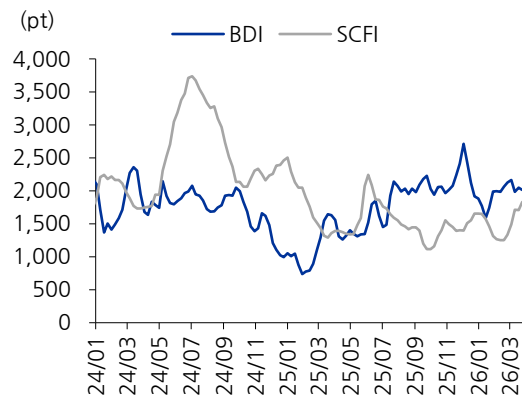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4/13~04/19)

[벌크선]

- 인도, 루피화 가치하락으로 건벌크 수출 증가세 지속
- 벌크선 시장, 수요 강세 및 선박 부족으로 강세 시황 지속
- 코스코해운벌크, 컨테이너선 부분으로 영역 확장

[탱커/가스선]

- 탱커 주도로 1Q26 글로벌 신조 발주 422척으로 34% 증가
- SK해운 탱커 접고 LNG선 확충, 선대 재편 '화룡점정'

[컨테이너선]

- MSC 컨테이너 선대 수 세계 최초로 1,000척 돌파
- HMM 남중국 노선 유류할증료 인상, 전쟁 후 첫 인상
- HMM, 허브앤스포크 기반 서아프리카 신규 서비스 개설
- 태평양 횡단 및 유럽항로 운임 6주만에 하락세 전환

[기타]

- 이란, 美와 협상 좌초 피하러 원유수송 일시중단 검토
- 이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선언 하루만에 인도 선박 공격
- 이란 호르무즈 재봉쇄에 美 '전면나포', 종전 협상 또 먹구름
- 싱가포르 3월 선박 연료공급 499만톤(+12.6%yoy) 기록
- 중동사태로 글로벌 해운사 연료비 46억유로 추가 부담
- 영국, 美 주도 호르무즈 역봉쇄 불참, 다자 협력체 구성중
- 2025년 EU 배출권 거래제 배출량 전년대비 1.3% 감소
- 현대글로벌비스, 美 동서부 물류거점 구축...북미 공급망 강화